

# 카자흐스탄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의미 대비(對比)

김수현  
안양대학교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опоставление семантики глагола «넘어지다» («падать»)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коре мар» и диалекта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Автор:** *Ким Су Хён, университет Анья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езюме:** *Цель этой стать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опоставление смыслового значения глагола «넘어지다» в диалекте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и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коре мар». Это сравнение раскрывается в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возникновения в «Коре мар» семантики глагола «넘어지다». Результаты сопоставления показали следующее:*

1. *Количество смыслов, включаемых в глагол «넘어지다» в «Коре мар» больше, чем в диалекте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и .*
2.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фера глагола «넘어지다» включает также и такие значения, как 자빠지다, 엎어지다, 넘어가다.*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азахстанский «коре мар», диалект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глагол «넘어지다», семантическая роль, обсуждение, сопоставление*

**주제어:** *카자흐스탄 고려말, 중부방언, ‘넘어지다’류 동사, 의미역, 논항, 대비*

## 1. 서론

이 글은 동북방언의 하위 변종<sup>1</sup>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말에서 나타나는 ‘넘어지다’류 동사의 유형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비(對比)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주 연구 대상 자료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말(이하 고려말)은 ‘중부방언’과 음운, 형태, 통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미는 중부방언의 그것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정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언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방언 화자가 아니면 미묘한 방

---

<sup>1</sup> 광충구(2004)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immigrant koiné의 성격을 가진 함북방언의 한 변종(variety)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고려말 자료에는 함북방언 화자뿐만 아니라, 함남방언 화자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동북방언’의 한 하위 변종으로 부르기로 한다.

언 어휘의 의미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의에서는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를 대비(對比)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지닌 의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말뿐만 아니라 동북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미적 실체도 간결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넘어지다’류 동사들은 ‘넘어지다’의 의미인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동사에는 ‘곤두박질하다’, ‘꼬꾸라지다(고꾸라지다)’, ‘엎어지다’, ‘자빠지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행위자(Agent)가 어느 목표(Goal)점으로 쓰러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행위자의 유정성과 무정성, 목표점의 방향성에 따라 그 쓰임을 구별할 수 있다.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은 중부방언과 대부분 동일한 논항(agreement)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논항이 요구하는 어휘의 의미가 중부방언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기술하기에 앞서 2장에서는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비하여 이 고려말 동사 부류들이 가지는 의미 특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 2.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미 특성

고려말에는 아래 (가)와 같이 대략 아홉 가지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존재한다.<sup>2</sup>

- (가) 넘어디다~넘어지다, 자빠디다~자빠지다, 번져지다~번제지다, 어푸러지다~엎어지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꺾디박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 넘어가다, 낙매르 하다(~낙매하다),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

이 장에서는 (가)에 제시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가진 논항 구조를 통해 그 의미 특성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래 (나)는 고려말 화자들의 ‘넘어지다~넘어디다’의 자료이다.<sup>3</sup>

<sup>2</sup> 2장과 3장에 제시하는 자료들은 모두 형태음소전사를 하였다.

<sup>3</sup>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주 자료는 아래의 제보자들로부터 직접 조사한 것이다(제보자의 나이는 조사 당시의 나이임).

조사지점	제보자	조사 기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글라피라(85 세, 女)	2007년 7월 29일~8월 14일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윤올라(84 세, 女)	2009년 7월 17일~8월 2일

- (나) ㄱ. 내 앞우루 넘어봘소. {내가 앞으로 넘어졌소.}
- ㄴ. 가아 질에서 두올루 넘어젧소. {그 아이가 길에서 뒤로 넘어졌소.}
- ㄷ. 자아 질에서 넘어지다나이 오분할렐으 우오. {저 아이 길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을 우오.}
- ㄹ. 낭기 따올르 넘어지다나йка테 멩심해야 데지. {(나무를 패면) 나무가 땅으로 넘어지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 ㅁ. 낭기 두올르 넘어젧다. {나무가 뒤로 넘어졌다.}

(나ㄱ)과 (나ㄴ)을 보면 동사 ‘넘어지다’의 행위역 논항에 사람이냐 사물이 모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ㄱ)을 보면 목표역에는 ‘앞’과 ‘뒤’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ㄷ)은 행위역인 ‘아이’가 위치역인 ‘길’에서 ‘넘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다. 여기에는 목표역 ‘뒤’와 위치역 ‘길’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행위역으로 오는 경우 목표역에 ‘앞’, ‘뒤’ 방향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역과 위치역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려말에서 ‘넘어지다’는 사물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 넘어지는 방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나ㄹ~ㅁ)이다. (나ㄹ)은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과는 관계없이 넘어진 위치인 ‘땅’만이 나타나고, (나ㅁ)은 넘어지는 목표 방향인 ‘뒤’만 나타난다. 즉, 아래의 (나)과 같은 문장은 잘 쓰이지 않는다.

(나) ?<sup>3</sup>낭기 따에 두올루 넘어지다.

고려말의 ‘넘어지다’는 행위역으로 사람과 사물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행위역의 종류에 따라 위치역(Location)과 목표역(Goal)의 출현에 일정한 의미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은 주어인 ‘나무’가 스스로 ‘넘어지다’의 행동을 취하는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방향과 장소를 모두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넘어지다’의 경우 사물이 주어에 놓이는 경우 사람이 주어로 놓일 때와는 다른 논항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려말의 ‘넘어지다’ 동사는 ‘넘어지다<sub>1</sub>:<Agent, Location, Goal>’과 ‘넘어지다<sub>2</sub>:<Agent, {Location, Goal}>’ 두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논항구조의 차이는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행위역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또한, 필요한 경우 필자가 2008년 우즈베키스탄과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고려말 자료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빠지다~자빠디다’<sup>4</sup>의 쓰임을 살펴보도록 하자.

- (다) ㄱ. 내 길에서 두울루 자빠지다나이 다리 불거졌소.{내가 길에서 뒤로 자빠지다 보니 다리가 부러졌소.}  
 ㄴ. 영감이 내 여파틸르 자빠지구.{영감이 내 옆으로 자빠지고.}  
 ㄷ. 유끼 이래 자빠디문 그해 좋구.{웃이 이렇게 자빠지면 그 해(운수가) 좋고.}  
 (다) ㄱ. \*앞우루 자빠지다. ㄴ. ?유끼 두울루 자빠지다.

(다 ㄱ~ㄷ)을 보면 ‘자빠지다~자빠디다’의 주어 위치에도 사람, 사물이 모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다 ㄱ)을 보면 ‘자빠지다’의 목표역으로 ‘앞’이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려말의 ‘자빠지다~자빠디다’가 취하는 목표역에는 (다)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뒤’와 ‘옆’만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넘어지다’와는 달리 ‘자빠지다~자빠디다’가 취할 수 있는 방향성 명사의 출현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넘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자빠지다’도 (다 ㄷ)처럼 사물 주어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다 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표역이 있는 경우는 어색한 문장이 되며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다.

- (라) ㄱ. 발에 흙이 이릉기 흘 번져지무{발에 흙이 이렇게 흘 뒤집히면(좌우로 갈리면)}  
 ㄴ. 토담이 번져져서 다시 이래 짓구<sup>5</sup>{토담(土牆)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이렇게 짓고}  
 ㄷ. 두우루 번져지무 불거진단 말이오.{뒤로 넘어지면(빠가) 부러진단 말이오.}

(라 ㄱ~ㄷ)은 고려말에서 나타나는 ‘번져지다~번제지다’<sup>6</sup>의 쓰임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라 ㄱ), (라 ㄴ), (라 ㄷ)은 각각 의미가 다르다. (라 ㄱ)의 ‘번져지다’는 ‘흙이 뒤집히다’ 혹은 ‘흙이 좌우로 갈리다’의 의미이고, (라 ㄴ)은 ‘담이 무너져 내린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라 ㄷ)은 ‘뒤로 넘어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라 ㄱ, ㄴ)을 보면, ‘번져지다~번제지다’가 다의어

<sup>4</sup> 선대 거주지가 육진지역인 체보자에게서는 산발적으로 ‘자빠디다’와 같은 비구개음화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는 구개음화형이 나타나므로 이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sup>5</sup> 이 자료에서는 [지꾸]가 나타나 기저형을 /짓-/으로 보았으나, 고려말에는 [지꾸]와 같이 기저형 /짙-/도 확인할 수 있다.

<sup>6</sup> 이 동사는 ‘번지다~번디다’ 동사에 피동의 ‘-어#지(<디)-’ 구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번디다’는 육진 방언과 서북 방언에서 흔히 쓰이는 동사로 다의어이다. 흔히, ‘(흙을) 뒤집다’, ‘(달력을) 넘기다’, ‘(밥을) 거르다’, ‘번역하여 옮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곽충구·김수현 2008:618).

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리고 (라ㄷ)을 보면, 행위역에 사람이 나타날 때 ‘번져지다~번제지다’의 의미는 ‘넘어지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고려말 화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동사는 뒤로 넘어졌을 때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렇다면, ‘넘어지다’, ‘자빠지다’와는 달리 사람이 주어로 나타났을 때 ‘번져지다’는 목표역이 ‘뒤’일 때만 사용하는 동사인 것이다.

- (마) ㄱ. 자아 어째 어푸러지나?{저 아이 어째 엎어지나?}  
 ㄴ. 앞우루 어푸러지무 큰일날씨 잇소.{앞으로 엎어지면 큰일 날 수 잇소.}  
 (마') ㄱ. \*두울루 어푸러지다.  
 ㄴ. \*엎울루 엎어지다.

위 (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푸러지다~엎어지다’는 ‘넘어지다’, ‘자빠지다’와 달리 목표역에 ‘앞’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 어색하다. 고려말 화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푸러지다~엎어지다’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만을 표현한다고 한다. 실제 발화에서는 (마 ㄱ)처럼 목표역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아 어째 앞우루 어푸러지나?’에서 ‘앞우루’가 생략된 것이다. 또한 ‘어푸러지다’가 취하는 주어에는 사람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고려말의 ‘어푸러지다’는 ‘사람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의 의미 이외에 아래의 (마ㄷ)처럼 다른 쓰임을 가지기도 한다.

- (마) ㄷ. 영계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구.{여기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 하고.}

(마ㄷ)의 ‘엎어디다’는 ‘있는 것에 무엇이 더 없히거나 놓이다’의 의미이다. 이는 ‘엎어디다’의 원형적 의미에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sup>8</sup>

- (바) 늣으무 사람이 앞우루 잘 꼬꾸라지기도 하오.{늣으면 사람이 앞으로 잘 꼬꾸라지기도 하오.}

<sup>7</sup> 광충구(2008)에서 제시한 선대 거주지가 함북 지역인 중국 연변지역 한인들의 자료를 보면, 이 논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번져지다~번제지다’가 가진 다의어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외에도 ‘번져지다~번제지다’는 ‘꺾히지다’, ‘엎어지다’, ‘승패가 뒤바뀌다’, ‘말의 소리가 변하다’ 등의 의미를 더 가진다.

<sup>8</sup> 광충구(2008)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꽤애니게 엎어디서 상충대는 고래르 들어가서 애르 땃습구마.{귀신에게 홀려서 반대되는 꼴짜기로 들어가서 애를 먹었습니다.}’와 같이 ‘엎어디다’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이끌려 거기에 빠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바)는 고려말의 ‘꼬꾸라지다’의 예이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꼬꾸라지다’는 주어 위치에 사람만이 올 수 있고, 넘어지는 방향은 ‘앞’만을 가리킨다. 이는 중부방언의 쓰임과 같다.

(사) ㄱ. 오부채기르 치다가 구들에서 꾀다박질하오.{난리를 치다가 구들에서 꾀다박질하오.}

ㄴ. 아아 아장아장 걸다가<sup>9</sup> 꾀다박질으 하이 지내 우웁지.{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꾀다박질을 하니 너무 (많이) 울지.}

(사)의 ‘꾀다박질하다~꾀다박질으 하다’는 주어 위치에 사람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꾀다박질하다~꾀다박질으 하다’의 쓰임을 보면 다른 ‘넘어지다’류 동사와는 달리 ‘한쪽으로 쓰러지다’의 의미에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힘’의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 ㄱ. 병이 들무 사람이 가마이 서 잇다가 불췌르 훌 넘어가기두 하오.{병이 들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잇다가 갑자기 훌 넘어가기두 하오.}

ㄴ. 낭그 패무 한쪽을르 넘어가갓습짐.{나무를 패면 한 쪽으로 넘어가겠지요 뭐.}

(아)의 ‘넘어가다’는 사람과 사물 주어를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 넘어가는 방향은 ‘옆’만을 가리킨다. 즉, 행위역은 ‘사람’, 목표역은 ‘옆’일 때 ‘넘어지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넘어가다’가 쓰일 수 있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넘어가다’는 가만히 서 잇다가 옆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또한, ‘뛰어가다가 혹은 걷다가 넘어가다’의 의미를 지닌 문장은 나타나기 힘들다고 한다.

(자) ㄱ. 저 노친이 길에서 낙매르 했다 하오.{저 노인이 길에서 넘어지셨다 하오.}

ㄴ. 아바니 동삼에 멩심하압소. 낙매하무 오곰이 불거지입구마.{할아버지 겨울에 멩심하세요. 넘어지시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행위역이 사람일 때만 쓰이며, 목표역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 명사는 ‘넘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나)~(아)의 ‘넘어지다’류 동사들과 다르게 주어에 [+존대]의 자질을 가진 명사가 오는 경우에만 ‘낙매르 하다~낙매하다’가 쓰인다. 즉, ‘넘어지다’의 높임 표현인 것이다.

<sup>9</sup> 이 ‘걸다’의 어간 말음은 /꺄/이다.

- (차) ㄱ. 돌에 걸켜서 다배뎡다.{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 ㄴ. 다배진다는 거 앞우루 고꾸라지는 계구.{넘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고.}
- ㄷ. 울리짜(улица)에서 잘못 대배져서 그 노친네 상세넛소.{거리에서 잘못 넘어져서 그 노친네가 돌아가셨소.}
- ㄹ. 오늘 비 많이 오다나이 곡섹이 다배젯소.{오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곡식이 쓰러졌소.}
- ㅁ. 유끼 다 다배지무 승이라구 하구.{옷이 다 뒤집히면 ‘승(옷)’이라고 하고.}<sup>10</sup>

(차ㄱ~ㄷ)의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sup>11</sup>는 모두 사람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차ㄱ)은 ‘(사람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이고, (차ㄴ)은 ‘(사람이) 다배진다는 거는 앞우루 고꾸라지는 계구.’이다. (차ㄷ)도 ‘노친네가’처럼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나 (차ㄹ)은 ‘곡식’, (차ㅁ)은 ‘옷’이 주어로 나타난다. 즉, 사람과 사물 모두 주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는 ‘앞’이나 ‘뒤’로 넘어진 경우에만 쓰인다고 한다. 즉, 목표역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은 ‘앞’과 ‘뒤’이며 ‘옆’은 나타나기 어렵다. 그리고 (차ㄹ,ㅁ)을 보면,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가 ‘쓰러지다’, ‘뒤집히다’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는 이 동사가 ‘번져지다~번제지다’처럼 다의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유형과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과 의미

‘넘어지다’류 동사	의미
넘어디다 ~넘어지다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자빠디다 ~자빠지다	① 사람이 뒤 또는 옆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② 옷가락 따위가 갖혀짐

<sup>10</sup> 이 자료는 필자가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고려말 화자의 자료이다. 제보자는 안타샤(女, 81세)로 선대 거주지는 함북 온성군이다. 카자흐스탄 고려말 화자들에게서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키르기스스탄의 고려말 자료를 사용하였다.

<sup>11</sup> 이 동사는 어간 ‘다배-’에 ‘-어#지(<디)-’ 구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다배다’는 ‘손바닥을 뒤집다’, ‘옷이나 주머니 따위의 속이 겹으로 나오도록 뒤집다’처럼 표준어 ‘뒤집다’에 대응하는 동사이다(곽충구·김수현 2008:678).

번져지다 ~번제지다	①발을 갈 때 흙이 뒤집힘(혹은 좌우로 갈림) ②담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림 ③사람이 뒤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어푸러지다 ~엎어지다	사람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꾼디박질하다 ~꾼두박질으 하다	사람이나 사물이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힘
꼬꾸라디다 ~꼬꾸라지다	사람이 앞으로 고부라져 쓰러짐
넘어가다	사람이나 사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낙매르 하다 ~낙매하다	윗사람이거나 친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다배디다 ~다배지다 ~대배지다	①사람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②물체가 쓰러짐 ③옷가락이 갖혀짐(뒤집힘)

### 3.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

2장에서 살펴본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에는 ‘넘어지다’, ‘자빠지다’, ‘엎어지다’, ‘꾼두박질하다’, ‘고꾸라지다~꼬꾸라지다’가 있다. <표 2>를 보면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들 동사 부류들은 중부방언보다 고려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sup>12</sup>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넘어디다~넘어지다	넘어지다
자빠디다~자빠지다	자빠지다, 갖혀지다
번져지다~번제지다	△(넘어지다, 흙이 뒤집히다, 흙이 좌우로 갈리다, 무너져 내리다)
어푸러지다~엎어지다	엎어지다

<sup>12</sup> ‘쓰러지다’는 이 논의에서 제외했는데, ‘쓰러지다’가 ‘힘이 빠지거나 외부의 힘에 의하여 서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눕는 상태가 된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 고려말과 중부방언에서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꼰디박질하다~꼰두박질으 하다	꼰두박질하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넘어가다	△(넘어가다)
낭매르 하다~낭매하다	△(넘어지시다)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잦혀지다, 뒤집히다)

※ △: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 어휘가 없음, 괄호 안에는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표현 및 어휘들을 제시함.

‘넘어지다’가 취하는 행위역과 목표역에 위치하는 어휘 의미는 고려말과 중부방언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진다’라는 ‘넘어지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행위역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역에는 ‘앞, 뒤, 옆’ 등 모든 방향성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자빠지다’도 두 방언 모두 행위역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역에도 ‘뒤’, ‘옆’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같다. 그러나 사물 주어에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 (다) ㄷ. 유끼 이래 자빠지문 그해 좋구.{웃이 이렇게 자빠지면(잦혀지면) 그 해 (운수가) 좋고.}
- (카) ㄱ. 가로수들이 길에 자빠져 있다.  
 ㄴ. 큰 전봇대가 자빠졌다.  
 ㄷ.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ㄷ)의 고려말에서는 ‘유끼(=웃)’이 주어 위치에 놓였을 때 ‘잦혀지다’의 의미로 ‘자빠지다’가 쓰인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카ㄱ~ㄴ)처럼 ‘가로수’나 ‘전봇대’가 쓰러져 있다는 표현에도 ‘자빠지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있다’를 속되게 쓰는 말로 (카ㄷ)처럼 ‘자빠지다’가 쓰이기도 한다. 이는 고려말의 ‘자빠지다’가 ‘잦혀지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유끼(웃)’만을 주어로 취하지만,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의 은유적 확장에 의해 사람처럼 서 있는 사물들이 넘어졌을 때 ‘자빠지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고려말에서 (카ㄱ~ㄴ)과 같은 ‘가로수’, ‘전봇대’와 같은 ‘1’자로서 있는 사물이 쓰러진 것을 표현할 때는 주로 ‘넘어가다’를 사용한다. 즉, ‘자빠지다’가 취하는 논항 구조는 ‘자빠지다:<Agent, Goal>’로 같지만 행위역에 올 수 있는 사물 명사의 종류에서 두 방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말의 ‘어푸러지다~엎어지다’와 중부방언의 ‘엎어지다’는 모두 행위역에 사람이 올 수 있고, 목표역에는 방향성 명사 ‘앞’만이 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 ‘엎어지다’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마) ㄷ. 영계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구.{여기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 하고.}

(타) ㄱ. 밥상이 엎어지다. ㄴ. 기존의 제도가 엎어지다.

(마ㄷ)의 ‘엎어지다’는 ‘있는 것에 무엇이 더 없히거나 놓이다’의 의미이다. 반면 중부방언에서 쓰이는 (타ㄱ)의 ‘엎어지다’는 ‘위아래가 뒤집히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타ㄴ)의 ‘엎어지다’는 ‘제도, 정권 따위가 무너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다’의 의미로 쓰였다.<sup>13</sup>

‘꼰디박질하다~꼰두박질으 하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는 중부방언과 그 쓰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꼰두박질’의 경우 중부방언은 ‘경기가 꼰두박질하다’는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만 고려말에서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넘어가다’의 경우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행위역에 놓일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보면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려말은 행위역에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한 고려말의 ‘넘어가다’는 목표역에 올 수 있는 방향성 명사는 ‘옆’뿐이지만, 중부방언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데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 ㄱ. 병이 들무 사림이 가마이 서 잇다가 불썰르 홀 넘어가기두 하오.{병이 들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잇다가 갑자기 홀 넘어가기두 하오.}

ㄴ. 낭그 패무 한쪽을르 넘어가갓습짐.{나무를 패면 한 쪽으로 넘어가겠지요 뭐.}

(과) ㄱ. 태풍에 전봇대가 뒤로 넘어간다.

ㄴ. 도끼로 패니 나무가 넘어간다.

ㄷ. ?내가 옆으로 넘어간다.(넘어진다는 의미로 쓰일 경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부방언의 예인 (과ㄱ)의 목표역에는 ‘뒤’라는 방향성 명사가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려말에는 그러한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과ㄷ)처럼 사람이 행위주에 놓일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아ㄱ)처럼 고려말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아니다. 즉, 고려말

<sup>13</sup> 고려말에서 (타ㄱ)의 의미로는 주로 ‘다배지다’를 사용한다. (타ㄴ)과 같은 쓰임은 아쉽게도 고려말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과 중부방언의 ‘넘어가다’는 행위역과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어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고려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행위주가 사람일 때만 쓰일 수 있으며,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방향성 명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 다만,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 동사는 행위주에 놓인 사람이 [+존대]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넘어지다’에 대한 높임 표현인 것이다. 이 동사에 대응하는 중부방언 동사는 없다.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의 주어가 [+존대] 자질을 갖는 경우 ‘넘어지-’에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일치소) ‘-시-’가 결합된다. 그러나, 고려말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없다. 따라서 고려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주어가 [+존대]일 경우 쓰이는 보충적 형태(보충법)인 것이다.

또한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의 경우도 대비할 만한 대응 형태를 중부방언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동사는 행위역에 사람과 사물이 모두 위치할 수 있고, 목표역에는 방향성 명사 ‘앞’, ‘뒤’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류 동사 중 목표역에 방향성 명사 ‘앞’과 ‘뒤’가 모두 나타나는 동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역에 모든 방향성 명사가 올 수 있는 ‘넘어지다’, 목표역에 ‘뒤’와 ‘옆’이 올 수 있는 ‘자빠지다’, 목표역에 ‘앞’만 올 수 있는 ‘엎어지다, 고꾸라지다, 꼬꾸라지다’만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 결과

고려말			중부방언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	의미역에 놓일 수 있는 어휘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	의미역에 놓일 수 있는 어휘	
	행위역	목표역		행위역	목표역
넘어디다 ~넘어지다	사람, 사물	제한없음	넘어지다	사람, 사물	제한없음
자빠디다 ~자빠지다	사람, 사물 일부	뒤, 옆	자빠지다	사람, 사물 일부 <sup>14</sup>	뒤, 옆
번져지다 ~번제지다	사람 사물	뒤 제한없음	△	×	×
어푸러지다 ~엎어지다	사람	앞	엎어지다	사람, 사물	앞
꼰디박질하다 ~꼰 두박질으 하다 <sup>15</sup>	사람, 사물	앞	꼰두박질하다	사람, 사물	앞

<sup>14</sup> pp.13-14에서 설명했듯이 행위역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는 고려말보다 중부방언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꼬꾸라지다	사람	앞	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사람	앞
넘어가다	사람, 사물	옆	넘어가다	사물	제한없음
낙매르 하다 ~낙매하다	사람 ([+존대])	제한없음	넘어지시다	사람 ([+존대])	제한없음
다베디다 ~다베지다 ~대베지다	사람 사물	앞, 뒤 제한없음	△	×	×

※ △: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 어휘가 없음

<표3>을 보면, ‘넘어지다’의 원형적 의미를 가진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행위역과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명사의 종류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사 ‘넘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부류의 수가 두 방언에서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고려말과 중부방언에서 나타나는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를 대비하여 두 지역 방언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각 하위 방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라는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통해 ‘넘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여러 동사 부류들의 의미적 특성은 두 방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언을 대상으로 한 어휘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할 때의 난점은 연구 대상 방언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의에서는 대비라는 방식을 취해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비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려말 어휘 의미에 대한 치밀하고 정확한 기술이 부족했다. 특히, ‘넘어지다’류 동사의 은유적 확장과 이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언 어휘 의미의 체계적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곽충구(2004),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언어적 성격”, <관악어문연구> 제 29집.

<sup>15</sup>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힘’의 의미가 더 있으나, 방향성은 ‘앞’이라 할 수 있다.

2. \_\_\_\_\_(2007), “중양아시아 고려말의 자료와 연구”, <인문논총> 58(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3. \_\_\_\_\_(2008)(未刊),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4. \_\_\_\_\_(2009), “중양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 <방언학> 10호.
5. \_\_\_\_\_(2010), “중양아시아 고려말의 음운 변이”, <국어학 논총(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태학사.
6. 광충구·김수현(2008), <중양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카자흐스탄 알마티>, 태학사.
7. 국립국어원(2007),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2)-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국어원.
8. \_\_\_\_\_(2008), <2008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국어원.
9. \_\_\_\_\_(2009), <2009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국어원.
10. \_\_\_\_\_(2010), <2010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국립국어원.
11. \_\_\_\_\_(2010), <2010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2)>, 국립국어원.
12. 김건희(2006),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제44호.
13. 김의수(2007), “의미역 위계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2집.
14. 시정곤(2003), “단어결합과 의미역 위계구조”, <언어연구> Vol.19 No.2.
15.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16.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현종(2000), “중양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17. 킹, 러쓰·연재훈(1992), “중양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18. Griffiths, P.(2006), *An Introduction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 Kearns, K.(2000), *Semantics*, Palgrave Macmillan.
20. Pak, N.S.(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21. \_\_\_\_\_(1996), “Korean Kinship Terminology(Yukchin Dialect of Kore mar)”, *Izvestija Koreevedenija Kazaxstan*, Vypusk 1, Almaty.
22. \_\_\_\_\_(1997), “Divergent Processes in Language Development (Yukchin Dialects)”,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3. Saeed, J. I.(1997), *Semantics*, Blackwell Publishers.